

# 동작구의회



제공일자	2016년 5월 일	
담당부서	의회사무국	
국장	윤양호	820-1718
공보팀장	문정순	820-1706
담당자	허석재	820-1707
■ 사진 : 첨부		■ 총 2쪽

## □ 동작구의회,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

- 오늘은 내가 구의원! 학생들간 건전한 토론의 장 펼쳐

- 동작구의회(의장 유태철)는 11일과 12일, 17일 삼일간에 걸쳐 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3개 초등학교 83명을 대상으로 '2016 청소년 모의의회'를 개최했다.
- 이번 모의의회는 11일은 남성초등학교 학생 26명이, 12일에는 동작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실시하였고, 17일에는 상현초등학교 학생 등 27명이 2시간 동안 실시 할 예정이다.
- 청소년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의장, 사무국장, 제안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본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개회식, 제안설명, 찬반토론, 의결의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,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영방식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체험을 토대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.
- 11일 모의의회에서 남성초등학교 학생 26명은 ▲자전거 통학 허용 조례안에 대해서 열린 찬·반 토론 후 부결하였고, 12일 동작초등학교 학생 30명은 ▲화장실 환경 개선에 관한 결의안 채택과 ▲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한 휴대전화 수거 허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팽팽한

토론결과 부결 하는 등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구의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.

- 모의의회에는 유태철 의장과 황동혁 부의장, 참석 초등학교 지역구 의원인 최정춘·최정아·강한옥·서정택 의원을 비롯 김명기·전갑봉 의원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.
  
- 유태철 의장은 “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오늘의 소중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” 고 밝혔다.
  
- 2003년도부터 실시해온 청소년 모의의회는 올해로 13회를 맞이 하여 그동안 40여개 학교에서 1300여명의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, 금번 청소년 모의의회는 17일 상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.